

# 스마트폰 문자, 낚이면 털린다

# A씨는 스마트폰 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하던 중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는 QR코드를 발견했다. 메시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보안카드를 비추는 순간 의심스러워 동전을 멈추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게임머니 등으로 35만원이 결제된 것이다.

# 지난 1월 B씨는 '○○○치킨 첫 행사 만원 할인 쿠폰 제공' 문자를 받고 무심코 해당 웹사이트를 클릭해 앱을 설치했지만 실행되지 않아 그냥 웹사이트를 종료했다. 이후 요금청구서를 통해 20만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신고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탈취한 뒤 금전 피해를 주는 전자금융사기인 스미싱(SMS+Phishing)과 큐싱(Qishing·QR코드+Fishing)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명 외식업 무료 쿠폰 제공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접속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수십만 원씩 결제되는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금융사기법들은 사용자 관심사항을 미

청첩·무료쿠폰 제공 메시지로 스마트폰에 악성앱 설치 유도 접속만 해도 수십만원 결제 폰키퍼 설치해 감염 방지해야

기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고 유도해 악성코드를 실행시키고는 게임머니 결제 등으로 돈을 빼가는 방식이다. 스미싱 유도 문자는 청첩장, 돌잔치 초대, 경찰 출석 요구서, 교통법칙금 조희, 건강보험공단 무료 진단, 카드대금 조회 등 유형이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정상적인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만들고는 추가인증을 빌미로 QR코드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 사기도 있다. 악성 앱으로 보안카드,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탈취해 소액결제, 자금이체 등으로 돈을 털어간다.

금감원이 제시한 피해 예방법은 소액결제 차단과 보안 앱 설치다. 소액결제를 쓰지 않는 사용자는 통신사 콜센터에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게 좋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phone keeper)' 등을 사용해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라는 것이다.

무료나 할인 쿠폰, 보안 강화, 대출 알선 등의 문자나 전화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내역을 갖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통신사 고객센터에 금융사기 피해 접수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통신사는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사업자와 스미싱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금 환불·취소나 부과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소액결제 희망자에게만 결제 한도가 부여되도록 고객이 확실할 수 있는 별도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와 제도개선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소비자원-가스안전공사 안전점검 협약



지난 9일 충북 음성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가운데 왼쪽)과 정대표 한국소비자원 원장(가운데 오른쪽)이 '가스 제품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제조업체의 불만을 의식해 사라졌던 가스용품 품질비교평가가 부활한다. 올해 안에 이동식부탄연소기에 대한 품질비교평가가 실시되며 이후 전체 가스용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용품 안전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가스 관련 제품의 품질비교와 안전성 조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우선적으로 이동식부탄연소기 등 가스제품에 대한 품질비교평가를 실시해 매년 권수(안전리포트(가칭)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수(안전리포트는 소비자에게는 가스제품 품질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사는 우수하고 안전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다.

이와 함께 가스제품 안전성 상호 자료 및 정보교류를 비롯해 가스안전 시험·연구 인력 및 장비 공동 활용, 지역사회 합동 사회공헌활동 등이 추진된다.

한편 가스용품에 대한 품질비교평가는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2000년 중반까지 가스보일러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2011년 소비자원도 국내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품질비교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후 제조업체의 반발과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대포통장' 악용 방지 소액결제와 9100만개 거래중지

내일부터 순차 시행...거래 하려면 은행 방문해 서면 신청해야

금융감독당국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면 소액결제와 9100만 개의 거래중지를 추진한다. 이들 계좌는 오는 13일부터 은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약관에 다른 거래 중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정을 보면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다음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거래중지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의 시행한다.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와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100만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계좌 발급 절차를 강화하

자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중지된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금융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7~9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구두·핸드백에서도 '유해물질'

생활용품 26개 리콜 명령

구두, 벨트, 핸드백 등 가죽제품에서 허용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31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구두(5개), 벨트(4개), 핸드백(3개), 휴대용사다리(1개), 폴리염화비닐(PVC)관(13개) 등이다. 가죽제품 12개에서는 피부염이나 유전자 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기준치(3.0mg/kg)를 1.5~5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구두는 내피·뒤꿈치·갈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6가 크로뮴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엔텍스라인, 제미엔에프, 우성I&C, 덴디, 엘칸도, 망고코리아, 한남사, JAG풋웨어, 크



레송, 성주디앤디, 대은제화, 엠제이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경매투자자! 무엇이 정답인가!

## NPL과 특수경매만이 정답이다!

특수비법 배우실 분!	공동투자 하실 분!	돈 빌려주실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PL과 특수경매만 전문취급</li> <li>주 1회 2시간 3개월 완성</li> <li>1대1 실전사례 교육</li> <li>임장/교육비 등 2200만원</li> <li>단, 상담 후 본사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이전으로 보장</li> <li>연 12% 이상 수익률</li> <li>투자금 1억원 이상</li> <li>모든과정 공개 투명처리</li> <li>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저당으로 보장</li> <li>연 12~20% 이자 지급</li> <li>차용금 1억원 이상</li> <li>1년~2년 정도 기간</li> <li>개인신상 비밀 보장</li> </ul>

경매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 1필지
- 동면방향, 화순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말 완공예정
- 매매가 1억 3천 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

###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월산동 110-8번지, 34평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축
- 신우APT 105동역, 즉시 입주
- 매매가 1억 6400만원 (용자 1억 1천만원 안고)
- 전세 1억 4천만원 가능
- 삭월세 보 1천만원에 65만원 가능

---

- 월산동 110-18번지, 19평
-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있음
- 신우APT 105동역, 즉시 입주
- 매매가 9500만원 (용자 7000만원 가능)
- 전세 8000만원 가능
- 삭월세 보 1천만원에 월 45만원 가능